



사진으로 읽는 광복 60년 <시대와 사람들>

우리원은 민족사진가협회와 공동으로 사진으로 읽는 광복 60년 <시대와 사람들>을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마로니에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사진전 <시대와 사람들>은 역사적 변혁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자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1945년 해방 그날부터 최근까지, 할아버지 세대부터 십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순간, 사건, 사고, 그리고 일상까지 사진의 내용은 시간을 관통하며 세대를 아우릅니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는 정범태, 주명덕, 강운구 등 원로 작가에서 오형근, 김중만 등 중진작가, 그리고 신진작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50여 명이 참여하여 이제까지 접하기 힘들었던 한국 사진의 흐름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시대와 사람들

전시제목 : 시대와 사람들
전시기간 : 2005. 4. 12 - 5. 8
전시장소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